

새봄과 더불어 신나는 직장을 만들자

Let's make our office fun with the breeze of spring

-감사실을 사랑방으로 개방한다



김득수 | Kim, Deuk-su, KIRA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평생 설계를 업으로 살면서 마지막이라 말하긴 아쉽지만 감사로서 협회의 업무를 둘러보게 되었다. 많은 감사들이 거쳐 갔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떠났지만 지적인 업무 외에는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둘러봐야겠지만 무엇보다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협회가 신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는 일과 건축사 회원이 협회에 실망치 않도록 업무를 독려하고, 왜곡돼 처리되는 업무는 없는지 잘 살펴야겠다. 직원 면담도 늘리고 근무 중 애로사항도 수시로 청취해 신나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겠다. 아버지와 삼촌이 건축사로 3대가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집안이라 설계업무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으면만 협회의 업무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새봄과 더불어 제30대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출발점에 서서 힘차게 일하자고 외쳐본다. 더불어 이 지면을 빌어 직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코자 한다.

첫째, 왜 건축사협회를 직장으로 택했는지를 생각했으면 한다. 직장은 먹고살기 위한 곳이다. 그러나 봉급타기 위해 다닌다면 뭔가 너무 허전하지 않은가. 내가 이 협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권한다. 확실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직장생활이 보람 있지 않겠는가. 고민하다 해결책이 없거든 감사실을 찾기 바란다. 감사는 여러 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해 주는 자리라 생각하고 2년간 업무에 임하려 한다. 결코 직원들 피곤해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소상히 보고해주고 애로사항을 상의하길 바란다.

둘째,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고 싶다. 이 세상을 혼자 살 수 없다. 업무도 마찬가지다. 내 일만 하면 다 했다 하지 말고 옆 사람 일도 폭 넓게 알아주길 바란다. 무슨 일이 맡겨져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어느 시인의 “담을 고치며”란 시가 생각난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시구가 있다. “무엇을 담 안에 넣고 무엇을 담 밖에 두려는지” 쓰고 있다. 동료와 그의 업무를 담 안에 넣어 함께 해결한다면 누가 나를 싫어하겠는가. 동료가 쉽게 넘나드는 나의 낮은 담은 신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 도덕성 만큼은 높은 담을 쳐야 한다. 쉽게 담을 넘어 신세 망치는 사람이 한두 명인가. 요사이 새 정부 인사 청문회를 보며, 어느 건설업자의 부도덕한 접대를 보며, 넘어서는 안 되는 담을 쉽게 넘나든 고관대작을 보며 담의 높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셋째, 공부하는 직장을 만들자. 우리는 평생 공부하며 산다. 학교공부는 이미 했지만 그랬다고 인생 성공한 것 아니잖은가. 무엇이든 각자 관심 있는 분야나, 업무, 어학 등 공부하는 분위기로 스스로에게 채찍질하길 바란다. 건축사협회는 전문가 단체다. 전문가 단체에 근무하는 나도 전문가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단세포로 분화된 직업세계에서 전문성이 없으면 머무르는 위치는 뻔한 것 아닌가.

협회 공간도 협소하고 감사가 상근하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감사실이 굳게 닫혀 있었다. 새봄과 더불어 감사실을 활짝 열겠다. 회의도 하고 차도 마실 공간으로 열겠으니 자주 이용했으면 한다. 직원에게도, 협회 방문회원에게도, 감사실을 사랑방으로 개방하려 한다. 합리적으로 공간 활용도 하고 신나는 직장 만드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한다. ㄹ

필자는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전공 석사를 취득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도시·관광단지심의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서울건축사협회 영등포지역건축사회 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에너지설비분과위원장 역임, 서울건축사회복지회 신용협동조합 이사, 감사,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및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 대표로 재직 중이다.